

# 기독교청년의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비블리오드라마 경험 이해를 위한 현상학적 연구

김 윤 주\*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비블리오드라마를 실시한 후 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기독교청년의 대인관계 향상 과정의 의미와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삶의 과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대인관계 향상 과정을 연구절차에 따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블리오드라마를 처음 경험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9명 참여자들을 선정하였으며, 3시간씩 8회기 프로그램진행과 개별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분석하여 구성요소 8개와 하위구성요소 27개를 도출하였다. 8개의 구성요소는 '삶에 대한 점검',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경험',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한 카타르시스 경험', '역할행위를 통한 자신이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새로운 역할창조', '삶의 태도변화', '성장 및 도전'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은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개인의 삶과 연결시켜 표현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증가하여 대인관계가 유연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주제어:** 기독교청년, 대인관계향상, 비블리오드라마, 현상학적 연구, 상호작용

• 논문 투고일: 2021년 3월 20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7일

\*이든샘심리상담센터 소장

• 본 연구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김윤주의 박사학위 논문(2020년 2월, 지도교수: 황현영)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 I. 여는 글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타인과 친밀하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심리학자들(Johnson, 1993; Sullivan, 1953)은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Erikson(1959:1-17)은 청년기의 대인관계 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더하고 있다. 청년기는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이 심리사회적 발달과제이며, 또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관계와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라는 상호의존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이러한 친밀감은 타인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융합시키는 과정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데, 친밀감이 획득되면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는 보다 성숙해진다. 청년기의 친밀성은 주로 관계를 통해 형성되지만, 자신의 능력, 가치, 외모 등의 일관성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청년기에는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지거나 자기물두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감과 외로움, 공허감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송명자, 2013: 356). 결국, 인간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과 능동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기의 공통된 발달과업 중 직업선택과 취업문제는 경제적 독립과 정에서도 가장 큰 과업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청년층 실업률은 10.1%로 높은 수준이며 실제로 체감하는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청년들은 삶의 방향을 찾지도 못한 채 낮은 경제활동의 지속화로 생산 노동인력은 줄어들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상황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창조적인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지위에 대한 재탐색을 돕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나갈 때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김성희, 2007), 기독교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생산적인 대인관계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사회나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할 때 신앙은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청년들은 일반적인 청년들과 동일한 발달과제를 수행해야 함과 동시에 교회공동체라는 특수한 환경이 주는 신앙적 정체성이 더해져 자신의 문제를 더 노출시키지 못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김은혜, 2012: 126). 따라서 기독교청년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자연스럽게 탐색해 보면서 개인의 성장과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기독교청년들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예비학교, 이성교제, 의사소통방법, 미술치료, 영적성장 연구 등으로 비슷한 주제로 연구되어져 왔다.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청년들에게 기독교적 인간관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기 발견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비블리오프라마는 청년들을 구체적인 성경의 사건 속으로 초대하여 그 상황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성찰하고 자신을 향한 삶의 동기를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며 공동체적 프로그램이다(한국비블리오프라마협회, 2020: 16).

비블리오프라마는 교육적인 분야는 물론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하였다. 비블리오프라마의 효과성은 가족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기독교청년들이 자기 발견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변화와 역할이 확대되어 심리적 안녕과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었으며(김세준, 2009), 감정정화 및 치료적 요인을 통해 불안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이봉섭, 2015). 김현희(2018)는 문학작품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심리치료와 성장 연구를 다루었고, 장세영(2016)은 상처로 인한 내면 아이의 어려움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감정 표출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꿈을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은미(2014)는 비블리오프라마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경험에서는 억압에서 벗어나 실존적으로 살아가도록 의미를 모색하였다. 이처럼 비블리오프라마는 진정한 자기를 만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며 신앙적 성숙과 자아성장에 영향을 주었음을 검증하였다(김혜경, 2017).

인류학자 Victor Turner(1986: 168-170)는 인간이 놀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주장하며, 비블리오프라마는 삶의 모든 차원에서 직면하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진지한 놀이로 표현한다. 놀이는 단순히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경험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놀이는 의미를 찾는 영역을 제공해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도구이다(Krondorfer, 2010: 29-35).

본 연구자는 기독교청년들에게 비블리오프라마를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돕고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역할놀이 방법을 시도하였다. 역할놀이는 모레노에 의하여 출발한 인간관계 훈련방법이다. 역할놀이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자신이 몸으로 행위 하는 새로운 방식이다(Patricia & Antonina, 1999: 29-30).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회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할놀이중심의 비블리오프라마를 통해 청년기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대인관계향상 과정과 일반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심리·정서 및 신앙적으로 새로운 이해와 변화가능성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또한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던 기존의 인지적 방법에서 벗어나 몸을 사용하여 경험적이고 표현적인 방법으로 대인관계가 어떻게 향상되는지를 알아보며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비블리오드라마의 이해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대에 맞는 신앙과의 소통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자 하는 창의적인 방법인 비블리오드라마가 등장하였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심층심리학과 신학 사이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세계를 드러내고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창의성을 강조하며 성경의 말씀과 연결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Krondorfer, 2010: 192). 즉,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말씀을 통해 현재 내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며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문제 또한 공동체적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다(이봉섭, 2015).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인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의 이야기를 삶과 연결시켜 표현하고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정을 통해 치료적 효과를 얻게 한다(박희익, 2019). 이러한 행위 표출을 통해 참여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는 ‘잉여현실(Surplus Reality)’을 체험하게 된

다(한국비블리오드라마협회, 2020: 136). 잉여현실은 개인의 내적인 세계로 미해결된 과제와 같은 개념이다.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각자가 느끼고 지각하는 주관적인 진실을 말하며, 현실을 뛰어넘어 새롭게 확장된 경험의 세계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 미래의 자신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역할행위를 통해 감정을 자각하고 정확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과의 소통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통찰, 행위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 한다(Kreller, 2013: 53).

현대 사람들은 고도로 기계화된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살아가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나친 경쟁 속에서 개인주의적 삶을 강화시켰고 타인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서 자발성과 창조성을 제한시켰다. 성경은 더 이상 재미없는 오래된 책으로 여겨지면서 새로운 창의성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인지적 교육에서 벗어나 몸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전인적인 교육방법을 탐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성경해석 방법인 '미드라쉬'를 통해서 시도되어 왔다. 이는 성경을 더욱 실감나게 교육하기 위해 성경 해석방법을 사용하였고 노래, 춤, 드라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현화(embodiment)를 시도 하였다(황현영, 2007: 220-221). 미드라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미드라쉬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대까지 전달되어 왔으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블리오드라마이다.

미드라쉬는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나 목마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텍스트를 삶에 적용할 때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역사에 커다란 기여를 불러일으킨다. 미드라쉬는 본문을 하나의 장소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대화하는 장소라고 규명한다. 본문에 귀를 기울이고 미세한 부

분까지 놓치지 않을 때 깊이 있게 자기 실존을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한다(김현희, 2008: 15). 미드라쉬 과정은 드러냄, 가치의 향상, 열린 결말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창조함으로써 텍스트와 독자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 미드라쉬 방법론을 도입한 Peter Pitzele(2016: 38-39)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검은 흰 불꽃”에 비유한다. 검은 불꽃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라면 흰 불꽃은 문자들 주변의 여백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한다. 흰 불꽃은 문자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인물의 감정, 목소리, 소망, 눈물, 주변 상황 등 읽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조성으로 채워지게 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바로 본문의 흰 불꽃을 통해 검은 불꽃을 해석하고 통찰하는 방법이다. Pitzele은 미드라쉬를 성경읽기에 접목하여 생동감 있는 비블리오드라마, ‘비블리오로그’를 개발하였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드라마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해석학이며 미드라쉬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나와 너의 관계이다. 성경이야기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살아있는 삶과 목소리가 존재한다. 독자는 성경의 인물과 이미지에 직접 말을 걸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인물이 되어 말하게 된다.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상상하고 말 할 때 수동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참여자의 역할로 바뀐다. 검은 불꽃보다는 흰 불꽃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성경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검은 불꽃이 있는 본문의 열린 공간에서 일어난다(Pitzele, 2016: 38-44).

검은 불꽃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으로 늘 고정되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흰 불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다. 독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인물들의 감정, 대사,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연기하게 된다(Pitzele, 2016: 41). 비블리오드라마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스스로 공백을 채워보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삶을 새롭게 채울 수 있게 해준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문학, 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biblion' 과 행위를 나타내는 'drama' 의 결합된 형태로 성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기독교인에 의해 개발되었다.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야기를 재연하는 비블리오드라마는 교회현장을 중요시한다. 초기의 비블리오드라마는 효과적인 성경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점진적으로 기독교 상담과 목회상담분야 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및 심리 치료적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Krondorfer, 2010: 29).

비블리오드라마는 배우들이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무대는 아니다. 자발성과 즉흥성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관객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진행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과정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비블리오드라마의 목적은 누군가를 개종하거나 도덕화 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심리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성경의 본문들은 근본적으로 형제와 자매,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에 비블리오드라마는 모든 차원의 삶을 성경본문을 통해 활동적인 참여로 대면하려는 진지한 역할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본문을 통해 진지한 놀이를 할 때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 감정을 지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우리에게 상상력의 가능성을 확대시켜 주며, 성경이야기를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체현화된 경험으로 변화되어진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참여자들에게 스스로 공백을 채워보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삶을 새롭게 채울 수 있게 해준다



(Kronendorfer, 2010: 17-18).

비블리오드라마는 역할극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연기하며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어 역할을 표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역할극을 통해 다양한 존재들을 상상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다른 모양이 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며 창의적으로 읽는 능력과 함께 시작한다.

Moreno는 역할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 구성요소인 소시오드라마와 사적인 구성요소를 위한 사이코드라마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Patricia & Antonina, 1999: 26). 소시오드라마는 카타르시스(감정의 정화), 통찰(새로운 지각), 역할훈련(행동연습)을 목표로 하지만, 사이코드라마는 개인의 사적인 꿈이나 환상,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이나 장면을 재창조한다. 사이코드라마와 달리 비블리오드라마는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을 소시오드라마와 같이 집단적인 경험으로 다루기 때문에 참여자들로부터 저항을 줄이고 공식적인 역할 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소시오드라마는 근본적으로 교육적인 방식인 반면, 사이코드라마는 치료적 방식이지만 교육과 심리치료는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모두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며 사고와 감정,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다. 교육과 심리치료는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고 있다(Patricia & Antonina, 1999: 27). 교육과 심리 치료적 방법들은 역할놀이(role play)라는 매체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즐거운 놀이를 통해 카타르시스, 통찰, 역할 훈련 등의 비블리오드라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오수진, 2011: 94). 이와 더불어 대인관계의 개선, 행동의 변화, 자기

발견 등 내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김세준, 2018: 44).

비블리오드라마는 몸으로 체현하는 행위양식을 바탕으로 사회심리학의 구성 요소가 포함된 소시오드라마와 사이코드라마적 방법을 사용한다(오수진, 2011: 91). 하지만 비블리오드라마가 사이코드라마와 분명히 구별되는 점은 비블리오드라마는 각 진행단계 마지막에서 '다시 성경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원칙을 지킨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참가자들이 먼지를 터는 듯 한 연기를 하거나 그 장소를 나갔다가 들어오게 함으로서 역할 벗기를 통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텍스트에 집중하게 한다. 비블리오드라마의 일차적 목표는 연기를 통해 자신이 발견한 것과 참여자들이 발견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차적 목표는 이론이다. 이론은 지속되는 실천과정에서 생산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화시키는 필수적인 것으로 비블리오드라마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통의 목표를 지향한다(Martin, 2010: 154).

## 2) 비블리오드라마의 진행과정

비블리오드라마는 누구든지 참여하고 싶으면 함께 할 수 있으며 최적의 구성원인원은 8명~16명이 적당하다.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대집단으로 진행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해진 시간과 계획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제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Martin, 2010: 146). 기본적인 진행과정은 준비(위밍업)단계, 미드라쉬적 성경 읽기, 드라마실연(행위)단계, 마무리(나누기)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자는 미드라쉬적 성격읽기와 드라마행위 단계를 별도의 구분 없이 하나의 과정으로 응용하여 사용하였고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 준비 단계 (위밍업)

첫 번째 준비단계는 어색한 마음과 긴장된 몸을 이완시켜주는 필수

적인 부분으로 참여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워밍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을 주어야 한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발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과 자율성이 필요하다. 적절한 반응은 신체 및 심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새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발성이 높아지면 행위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만남 안에서 자유롭게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 집단을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몸을 이용할 때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소외되거나 방관하는 사람 없이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된다 (Patricia & Antonina, 1999: 40-42).

## (2) 드라마실연 (행위) 단계

두 번째 드라마실연 단계에서는 역할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성경 본문을 체현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성경을 머리와 입으로 단순히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 몸을 이용해 신체작업으로 드러내는 전인적 체험의 시간이 된다. 먼저 성경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미드라쉬적 성경 읽기를 통해 창의적인 방법들을 모색한다. 성경에 대한 창의적인 시각을 경험하는 방법은 오감을 통해 성경의 텍스트를 몸으로 느끼고 텍스트에 그림을 그리고 텍스트에 질문을 하기도 한다. 단어놀이에 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기, 인물과 연관된 단어 찾아보기, 인물들을 단어별로 배치해 보기, 성경구절 이미지화(사물 또는 미생물을 이미지로 조각하기, 인물을 조각해보기, 인물을 조각으로 변형해보기,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인물의 마음 조각하기, 몸으로 극적인 장면을 조각하기, 성경말씀을 장면으로 만들어보기, 성경말씀 전체를 극으로 보기)를 할 수 있다(박희익, 2019: 27). 이후 주인공을 선정할 때는 성경 말씀의 중요한 부분에서 많은 감정이 일어난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외 주인공과 더불어 이야기를 함께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배역들도 자발적으로 역할을 선택하게 한다(황현영, 2007: 228). 참여자들은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면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역할연기를 할 수 있다. 역할을 맡고 연기하는 동안 의식적, 성찰적, 분석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할을 창조적으로 연기할 때는 무아지경적 경험을 최소화 하고 지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역할놀이를 통해 성경본문과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면서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연기는 주어진 대사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본문을 표현한다. 비블리오드라마를 진행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참여자들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동일시적인 통찰을 깨닫게 된다.

참여자들이 본문 이야기를 지금-여기에서 새롭게 느끼는 바를 자유롭게 나눌 때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을 얻고 억압되었던 감정을 정화하게 된다. 행위 중에 있을 때는 자신을 숨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많이 개방하게 되면서 상황이나 감정, 사고를 처리하는 방식 등이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드러난다(황현영, 2007: 229).

### (3) 마무리 (나누기) 단계

마지막 단계 나누기는 종결 부분이다. 성경 본문으로 드라마를 실시한 후 연기자들은 그 역할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지금-여기에서 다른 참여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드라마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참여자들도 연기를 보면서 느낀 점을 서로 나누거나 연기 중에 어떤 장면이나 행동에 감정이 이입이 되었는지 이야기 나눌 수도 있다. 연기도중에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떠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다른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감정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할피드백이나 자기 동일시 피드백을 할 때 자신

의 창조적 연기단계에서 모호하게 남아있던 것이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명확해 진다. 나누기 시간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개방하게 되는데 지도자는 참여자들에게 느낌과 경험을 요구하거나 연기를 통해 표현된 행동을 분석하거나 감정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눔 시간을 통해 다음 회기 비블리오드라마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드러나기도 한다(Gerhard, 2010: 148-150). 마지막에는 찬양 또는 기도로 마무리한다.

비블리오드라마를 진행할 때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을 전달하였다. 첫 번째,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표현하지 않지만 내적으로 드러내는 감정과 행동을 알아차리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속의 인물이나 사물이 되어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역할을 내 모습으로 여기는 것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는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행동은 진행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느낀 점이나 피드백은 연기가 마무리 된 이후 나눔의 시간을 통해 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할에서 벗어날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전체적으로 개방적이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Pitzele, 2016: 181-183).

## 2.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와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I 지역에 위치한 개척1년 미만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9명의 청년들이다. 참여자들은 대학에 재학 중인 5명, 대학 졸업 후 취업자 1명, 대학원재학 1명, 재수생 1명, 무직으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1명의 대상자들로 총 남자 3명 여자6명다. 연령은 21세에서 26세로 구성되었고 기본적인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신앙경력	관계 어려움	참고사항
1	남	26	전도사	대학원 재학	15년	교회공동체 가족	모친 신앙생활
2	여	26	학생	대학 재학	7년	가족	양친 신앙생활
3	여	25	학생	대학 재학	모태신앙	가족 친구	양친 신앙생활
4	여	23	학생	대학 재학	모태신앙	타인	모친 신앙생활
5	여	23	학생	대학 재학	모태신앙	직장동료	모친 신앙생활
6	여	22	무직	전문대 졸	모태신앙	교회공동체	양친 신앙생활
7	남	21	학생	대학 재학	모태신앙	가족 교회공동체	모친 신앙생활
8	여	21	애견 미용사	전문대 졸	11년	직장동료 교회공동체 친구	모친 신앙생활
9	남	20	재수생	고졸	모태신앙	친구 교회공동체	양친 신앙생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현상을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의 목적은 참여자의 실제적인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것이며, 참여자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중심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기독교청년들의 경험을 점검하고 자료를 수집한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참여자들의 자료를 기록하고 관찰하였다. 면담에서 사용한 질문의 예를 들면 ‘비블리오드라마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비블리오드라마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었나요?’ 심층적인 개방형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과 기억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반구조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고, 면담시간은 약 90분-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의 윤리와 안전을 위해 참여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먼저 연구목적과 프로그램 진행 시간을 안내하고 녹음과 기록한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자료의 내용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참여의사를 거절할 수 있음을 안내 하였고,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에 동의와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위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 2) 비블리오드라마 프로그램 진행과정

비블리오드라마 프로그램의 목적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도록 심리적인 안녕과 신앙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선행연구

(박희익, 2019; 김혜경, 2017; 박은미, 2014; 장세영, 2016)와 이론적 배경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본 연구자가 비블리오드라마에 직접 참여하면서 경험한 방법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프

로그램 개발에 적용하였다. 대인관계의 문제점을 집단상담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대인관계가 향상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자기 탐색을 위해 지금-여기에서 자각하도록 하는 계슈탈트 심리치료의 방법도 적용하였다. 전체적인 과정 중 준비단계에서는 위밍업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행위단계에서는 성경본문을 탐색, 읽기, 몸으로 표현하면서 집단의 역동을 경험하였다. 마지막 적용 및 마무리 단계에서는 느낌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였다.

1회기는 프로그램 목적과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진행방법을 소개하면서 집단에 대한 참여 동기를 확인하였고 지켜야 할 규칙 및 주의 사항을 전달하였다. 집단에 대한 기대감을 1-10까지 척도로 표현하면서 느낌을 나누었다. 빈 의자를 이용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소개하며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느낌과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2회기는 참여자들 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몸으로 움직이며 활동하였고 위밍업단계에서 ‘하루 중 가장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잘 반영하는 곳에서 보도록 하였다. 그 다음 행위단계에서는 성경본문과 친숙해지는 시간과 성경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2인1조가 되어 한사람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은 눈을 가만히 감고 들어 보았다. 혼자 성경본문에 집중해서 읽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느낌을 나누고, 창 22:1-14절을 탐색한 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물의 감정을 상상해 보도록 하였다. 각자가 느낀 대상에 대해 어떤 감정인지 자유롭게 소개한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에서 떠오르는 산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 나는 그 산 어디쯤에 있나요? 혹시 그 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다시 눈을 뜨고 옆 사람과 자신의 삶과 연결된 기억들을 나누어 보았다.



3회기는 참여자들이 성경텍스트 위에 그림을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워밍업 과정에서는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자 A4용지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외모, 개성, 환경 등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실 2가지, 거짓 한 가지를 적는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구성원들은 한 가지 거짓을 찾아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위 단계에서는 성경본문 눅 15:8-10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지에 적어 놓은 성경 텍스트위에 단어, 문장, 여백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낙서한 후 설명해 보았다. 참여자들이 성경 텍스트와 연결시켜 나와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구성원 모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되어 주인이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 각자 숨어보도록 하였다. 자발성이 올라온 참여자는 주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 보고 역할 바꾸기를 통해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성경본문을 통한 비유의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자유롭게 나누어 보았다.

4회기 워밍업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모둠별로 조각상 세우기를 통해 협동심을 키우도록 하였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오징어’ 라고 사물의 이름을 외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둠별로 이미지 또는 특징을 조각상으로 만들어 보았다. 행위 단계에서는 갈 5:22-23절 말씀을 사물 또는 이미지로 조각하고 역할 연기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종이에 적어 바닥에 펼쳐 놓은 다음,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열매는 무엇인가? 이 열매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각자 찾아가 서 보게 한 후 동일한 열매를 선택한 사람들과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다. 열매를 얻기 위한 모습을 스톱모션으로 표현하면 다른 참여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타인에 대한 감정도 공감하도록 하였다.

5회기 워밍업은 참여자 중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대상을 찾아보는 텔

레를 경험 하였다. 예를 들어 커피를 사줄 것 같은 사람, 또는 내 이야기를 잘 경청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보고 조용히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하였다. 두 번째 텔레 찾기에서는 참여자 중에 가족과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먼저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려보았다. 긍정적인 텔레를 이루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집단의 응집력은 높아지고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행위단계에서는 엡 4:24, 살전 5:16-18, 요삼 1:2 성경구절을 종이에 적고 각 모둠에서 한명이 말씀카드를 선택하도록 한다. 모둠에서 선택한 말씀을 읽고 신문지와 잡지를 이용해 해당 글자를 찾아오려 붙여보았다. 시간제한을 두고 신속하게 문장을 완성하면서 결속력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먼저 완성한 모듬은 신체언어로 시각화하여 말씀을 표현하면서 오랫동안 기억해 보도록 하였다.

6회기 워밍업에서는 감정카드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탐색해 보았고 두 번째 워밍업에서는 풍선을 각자 얼굴 크기만큼 붙여 풍선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신호에 맞춰 풍선을 공중에 던진다. 날아온 풍선을 잡고 이름을 확인한 후 “오른쪽 눈을 그려주세요” 리더가 지시한대로 그려본다. 서로 풍선을 교환하고 얼굴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행위 단계에서는 마 13:13-33절을 읽고 작은 겨자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과정을 상상하며 모듬별로 몸으로 표현하였다. 큰 나무를 벽에 붙이거나 나무 모형을 세워놓고 각자 힘든 마음을 메모지에 적어 걸어두고, 구성원들은 나무 주위를 돌며 다른 사람의 힘든 마음을 읽어 볼 수 있게 하였다. 자신의 상황보다 마음이 덜 힘들 것 같은 내용의 메모를 가져오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7회기는 참여자들에게 워밍업을 통해 감정, 사고,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중앙에 의자를 하나 놓은 후 “예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심리적 거리만큼 서보세요” 예를 들어 제시하면 참여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서 보고 비슷한 거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님과 심리적인 거리등, 다양한 제시어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행위단계에서는 눅 15:11-3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간다. 아버지와 작은 아들 주인공을 선정하고 인터뷰를 시작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심경을 들어보고 다른 참여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편으로 나누어 서 보았다. 더불어 되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역할 바꾸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은 거리를 두고 마주보면서 서서히 다가올 때 느껴지는 심리적 변화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성경구절을 몸으로 조각하고 역할교대와 이중자아를 통해 표현력을 높이고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을 경험하였다.

8회기에서는 참여자이 성경말씀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주변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명업은 보물찾기와 바뀐 곳 찾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행위단계에서는 창 3:1-6절 말씀을 전지에 적어 성경본문을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한절씩 읽는다. “뱀은 여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쳐다봤을까?” 상상의 질문과 함께 내 마음에 와 닿는 문장에 각자 마음대로 색연필로 표시하거나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였다. 역할을 정하고 뱀, 하와, 아담, 열매가 되어본다. “당신은 누구세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만날 수 있게 한다. 역할연기는 반드시 성경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역할을 연기하면서 성경본문과 연결하여 떠오르는 이미지나 새롭게 경험한 내용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나눔의 시간을 통해 표현하였고, 그동안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마무리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비블리오드라마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대인관계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하여 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가장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에 호소하며 인간의 행동, 의도, 경험들을 그대로 되살리는 생생한 기술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이남인, 2003: 36).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해석보다 의식 속에 드러나는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탐구하고자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수집된 자료와 관련하여 선입견에 따른 판단을 중지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찾기 위해 가능한 자신의 경험과 지각 및 판단을 멈추려고 노력하였다(이남인, 2003: 94-95).

분석절차는 먼저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는 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자료를 여러 번 읽고 의미의 전환이 드러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의미단위를 나열하고 반복되거나 공통되는 의미와 연관된 의미를 통합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목록화하여 27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현상을 강조하면서 일상적인 표현을 심리학적 용어로 전환하였다. 넷째, 개인경험의 일반적인 구조를 찾기 위해 하위구성요소를 묶어 8개의 핵심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 4. 연구결과

기독교청년의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비블리오드라마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한 결

과, 하위 구성요소 27개, 구성요소 8개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비블리오드라마 경험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삶에 대한 점검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옴 자기노출을 두려워 함 연약함을 알게 됨 부정적인 정서가 지속됨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경험	부모와의 부적응적인 관계 친구와의 부적응적인 관계 직장에서의 부적응적인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부적응적인 관계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한 카타르시스 경험	동일시 경험 억눌린 감정 표출 유연한 사고 형성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
역할행위를 통한 자신 이해	적절한 자기개방 부족한 자신을 수용 자기 인식 변화
타인과의 상호작용	수용 받는 경험 객관적인 성찰 신뢰감 형성
새로운 역할창조	타인에 대한 민감성 향상 다름의 가치를 인정 친밀한 관계 맺기
삶의 태도 변화	삶의 만족감이 높아짐 삶의 동기를 재발견 원만한 관계 유지
성장 및 도전	신앙적인 변화 성경에 대한 새로운 발견 상상력 증가

### 1) 삶에 대한 점검

하위구성요소를 요약하면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옴’, ‘자기노출을 두려워 함’, ‘연약함을 알게 됨’, ‘부정적인 정서가 지속됨’ 등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 8은 ‘낮은 자존감을 숨기기 위해 과장되거나 친절한 척 대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돌아보기도 하고 생각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표현하였다. 참여자 6은 ‘내가 누구인지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잘해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 두려웠어요.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요.’ 참여자들은 자기 개방을 마음 내키지 않아하며 당혹스러움을 이야기 하였고,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걱정하며 방어적인 삶의 자세를 보였다.

### 2)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경험

하위구성요소는 ‘부모와의 부적응적인 관계’, ‘친구와의 부적응적인 관계’, ‘직장에서의 부적응적인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부적응적인 관계’ 등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관계에서 만족감이 낮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존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3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엄마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동생도 엄마도 챙겨야 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관심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참여자 4는 ‘교회에서는 일주일동안 삶을 정리하고 마음대로 쉬고 싶은데 자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눈치가 보여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 등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하고 선배나 목사님의 눈치를 보는 내 모습이 또 다른 직장에 출근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삶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더 집중하

게 되었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 3) 비블리오프라마를 통한 카타르시스 경험

하위구성요소는 ‘동일시 경험’, ‘억눌린 감정 표출’, ‘유연한 사고 형성’,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 등이 도출되었다. 카타르시스는 역할을 하는 동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행위를 보고 동일시하면서 일어나기도 한다. 자신의 경험 밖의 역할을 수행해 볼 때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 2는 ‘아브라함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때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참여자 5는 ‘성경을 들어서 돌아가면서 읽어 줄 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항상 누군가 옆에서 읽어준다면 지루해 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해 하지 않고 여유 있게 눈을 감고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인공의 마음이 느껴지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여자들은 비블리오프라마를 경험하거나 관람하면서 울컥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정화하였다.

### 4) 역할행위를 통한 자신 이해

하위구성요소는 ‘적절한 자기개방’, ‘부족한 자신을 수용’, ‘자기 인식 변화’ 등이다. 참여자들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를 개방할 수 있게 되었고 비블리오프라마는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 3은 ‘예전에는 감정을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욕을 먹을까 두려워서 표현을 자제했는데 비블리오프라마를 경험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맞닥트렸어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터득했다고 해야 하나...’ 참여자 7은 ‘뭔가 배우려는 자세로 앉

아 있었고 처음부터 자신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관람하게 되었어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자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힘이 들었고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생겼어요. 뭔가 느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중심에 서있어요. 관찰만하다가 직접 참여하게 된 거예요.’ 참여자들은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 5)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신의 모습을 타인이 인정해 줄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수용 받는 경험’, ‘신뢰감 형성’, ‘객관적인 성찰’ 등이 도출되었다. 참여자 6은 ‘내 이야기를 듣기위해 귀를 열어주고 관심을 주는 것이 행복했어요. 나를 그대로 드러내도 수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편하던지…….’ 참여자 5는 ‘내가 누구인지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게 부딪치면서 진짜 내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성찰은 회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혼자 있을 때 깊이 반성하면 행동을 조심할 수 있잖아요.’ 참여자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되었다.

#### 6) 새로운 역할을 창조

참여자들은 성경인물을 역할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고 역할을 창조하는 경험을 하였다. 하위구성요소는 ‘타인에 대한 민감성 향상’, ‘다름의 가치를 인정’, ‘친밀한 관계 맺기’ 등을 도출하였다. 참여자 9는 ‘다른 사람 앞에서 역할을 실연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이



야기가 궁금해졌어요.’ 참여자 7은 ‘역할 바꾸기만으로도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몰랐던 많은 부분이 쉽게 공감이 되었어요.’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게 되었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적절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 7) 삶의 태도 변화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역할을 연습하면서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새롭게 경험한 사실을 삶에 적용하고 싶어 하였다. 하위구성요소는 ‘삶의 만족감이 높아짐’, ‘삶의 동기를 재발견’,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이다. 참여자 6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생겼어요.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 맞죠.’ 참여자 5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서 믿음도 생겼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느꼈어요. 주변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삶에 대한 의미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변화를 얻게 되었다.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주인공의 역할을 할 때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었다.

#### 8) 성장 및 도전

참여자들은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경험하였다. 대부분 비블리오드라마를 처음 접하면서 궁금함을 갖고 있

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이 아닌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놀라움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새롭게 바뀌었고 성경의 텍스트가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어 삶속에서 자유를 깨닫게 되었다. 하위구성요소는 ‘신앙적인 변화’, ‘성경에 대한 새로운 발견’, ‘상상력증가’ 등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5는 ‘비블리오드라마를 하면서 내가 자발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신앙도 자발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 1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알 수 있었어요. 남자들이 말을 더 안할 줄 알았는데 자매들이 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체를 통해 나의 상황과 접목시킬 수 있었어요. 어릴 때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활동을 통해 내 속에 생각들을 들여다보아서 재미있었어요. 어려서 카메라를 잃어 버려서 힘들었던 생각이 나면서 그때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나도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날줄은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들은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삶에서도 적용하고 싶어 하였다. 비블리오드라마를 놀이로 경험하면서 창의적인 상상력들이 생겼고 자발적이 모습들이 높아져 친근감을 느껴 관계를 새롭게 맺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5. 일반적 구조진술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들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일반화한 후 전체 맥락에서 구조화하여 비블리오드라마 경험에서 나타난 심리적 변화과정의 일반적 구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기탐색과정, 감정정화 단계, 행위통찰 단계 또는 역할훈련 단계, 성장 및 적용 단계의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구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참여자

들의 개별적인 경험들을 참여 관찰자의 관점에서 발견하였고 주제와 중심의미와의 상호관계를 추출하여 파악하였다. 비블리오드라마 프로그램 초기에는 참여자들이 타인의 시선을 염려하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힘들어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감정 등을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서로 깊이 있는 관계경험이 부족하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등 비자발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여자들은 위밍업단계에서 몸을 움직이는 신체활동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하며 감정, 사고,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참여자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체현해 보면서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표현 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충분히 표현할 때, 억눌린 감정들이 해결되어졌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타인과 동일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면서 누구나 유사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감정을 표현하면서 정서적인 해소를 통해 마음속에 쌓아두거나 묻어두었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였고 막혔던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경험하였다. 감정정화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며 참여자들은 부모, 친구, 동료,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통찰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연성이 부족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가족 안에서의 갈등을 순조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현재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비블리오드라마 주인공의 역할을 통해 현실에서는 표현하지 못했던 행동과 언어, 감정을 연습하였고, 마음속으로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역할놀이와 역할 바꾸기를 통해 이루어질 때 자신감을 회복하

였다. 참여자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몸으로 경험되어진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새롭게 바뀌었다. 참여자들은 성경의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의 상황이 현재 삶속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성경은 더 이상 흥미를 잃은 텍스트가 아님을 재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발성과 창조성이 증가하였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얻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회기가 지나면서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잉여현실 안에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타인의 관점에서 공감하고 관심을 주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겼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변화가 생겼고 주변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성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비블리오드라마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서 나타났고 각 과정은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며 단계별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부분은 자기탐색 과정, 카다르시스 경험, 역할 행위를 통한 통찰이나 역할 바꾸기를 통해 관계를 재형성하는 등 일정한 방향과 흐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 는 무대 위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나누면서 새로운 역할을 재구성 하게 되었고 변화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먼저 자신과의 진솔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등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 6.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기독교청년의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비블리오드라마 경험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살펴보았으며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 향상 집단 상담을 비블리오드라마로 진행하였고 프로그램개발 및 심층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질적 연구로 확대 하였다.

둘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대인관계향상 과정을 상담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심리치료 효과를 목적으로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문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고 관련된 의미와 본질을 탐색한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비블리오드라마는 익숙한 성경 본문을 통해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었고 일방적으로 성경을 듣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몸으로 체현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관계를 재탐색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성경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을 집단적인 경험으로 다루어 저항을 줄이고 역할 연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표현 할 수 있게 하였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해소되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성경의 이야기들을 삶과 연결시켜 표현하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치료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여섯째, 놀이를 잃어버린 기독교청년들에게 역할놀이를 통해 내면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타인과의 조화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 7.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동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범위가 제한적이고 양적연구와 같이 일반화하거나 모든 기독교청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로 고민하는 연령층을 확대하여 다양한 매체와 비블리오드라마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블리오드라마가 대인관계향상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후속 연구가 지속적 된다면 교회 내에서 상담과 교육, 신앙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비블리오드라마의 다양한 기법들이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많은 기독교상담자들이 비블리오드라마에 관심을 갖는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상담현장에서 다양한 내담자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기독교청년의 대인관계향상 과정을 접근하였으나 비블리오드라마를 활용한 양적연구, 내러티브, 근거이론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때 기독교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들에게도 대인관계향상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Ⅲ. 닫는 글

기독교청년들은 자기탐색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힘든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탐색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 및 관계를 유지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대처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청년들은 능동적으로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서 공동체적지지 경험들이 친밀한 관계로 이어졌다. 또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역할 바꾸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관계의 의미를 재형성하였다. 기독교청년들은 성경을 몸으로 체현화 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흥미가 생기고 신앙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졌으며, 이러한 경험은 관계 변화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관계 지향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삶의 욕구와 연결되었다.

기독교청년들은 역할놀이 방법으로 비블리오드라마를 경험하면서 창의적인 상상력이 생겼고, 지금-여기에서 성경 본문과 만나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정서적 공감에 변화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 것이다.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역할놀이에서 역할 창조로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향상과정을 살펴본 결과, 기독교청년들은 감정을 수용 받는 경험이 부족해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초기에는 자기 개방을 어려워하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익숙한 성경이야기를 통해 재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이 노출되어질 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역할과 상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행동을 연습하게 되었다.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역할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보편적인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기독교청년들은 자신의 문제와 갈등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탐색할 때 자신의 문제를 함께 나누게 되었고 새로운 관점으로 사고하려는 삶의 태도 방식을 얻게 되었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성숙한 자기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장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란다.



### 【 참고문헌 】

- 계홍규 (2011).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를 통한 새로운 성서해석방법 연구: 누가복음 15:11~32 (탕자비유)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권석만 (2009).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성희 (2007). **자기계발을 위한 주장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세준 (2009). 기독교집단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위한 액션메소드의 종합적 활용.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2(1), 23-38.
- 김세준 (2011).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한 자기발견과 치유경험: 가족갈등을 경험한 기독교 청년들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준, 황현영 (2018). **성경이 살아나는 비블리오드라마**. 서울: 현대드라마치료연구소.
- 김은혜, 박미하 (2012). 기독교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19, 125-156.
- 김정휘 (1983). **현대청년심리학**. 서울: 학문사.
- 김현희 (2008). 비블리오드라마와 독서치료.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1, 11-42.
- 김현희, 고원석, 김윤주, 김희영, 손성현, 이동희, 이미숙, 이봉섭, 이영미, 최금례, 황현영(2020). **교육 · 상담을 위한 비블리오드라마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혜경 (2017). 비블리오드라마에 참여한 기독교대학생들의 부모와의 갈등 경험.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영 (2009).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한 역동적인 성서교육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2014). 기독교 중년여성의 비블리오드라마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익 (2019). 비블리오드라마가 기독교청년의 자아정체감, 자기표현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비블리오드라마교육연구소 (2016). **비블리오드라마매뉴얼**. 서울: 일상커뮤니케이션.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손성현 (2010). 비블리오드라마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27, 429-456.
- 송명자 (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오수진 (2011). 노인 여가활동으로서의 비블리오드라마 효과.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2), 89-109.
- 이남인 (2003). *현상학과 질적 연구방법*. 서울: 한국학술진흥재단.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 연구방법*. 파주: 한길사.
- 이봉섭 (2015). 비블리오드라마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세영 (2016). 대학생의 내면아이 성장을 위한 비블리오드라마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학 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진 (2016).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황현영 (2007). 비블리오드라(Bibliodrama): 새로운 유형의 치유 성경공부. *목회와 상담*, 9, 228.
- Erisk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 1.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va, L. (2002). *임상현장에서의 사이코드라마*(최윤미 역, *A clinician's guide to psychodrama*, 3rd ed.).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1 출판).
- Irving, S. (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이승연, 박혜준 역,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서울: 학지사. (원전 2005 출판).
- Kreller, H. (2013). *Bibliodrama: Ein lehr-und praxisbuch*. Erlangen: Books on Demand.
- Krondorfer, B. (2010). *비블리오드라마*(황현영, 김세준 역, *Body and Bible*). 서울: 창지사. (원전 2008 출판)
- Martin, M. G. (2010). *몸으로 읽는 성서*(손성현 역, *Sachbuch bibliodama, praxis und theorie by gerhard marcel martin*). 서울: 라피스. (원전 1995 출판).
- Moreno, J. L. (1975). *Psychodrama*. New York: Beacon house.
- Patricia, S., & Antonina, G. (1999). *사회극을 통한 우리들의 만남*(조성희, 김광운 역, *Sociodama: Who's in your shoes?*). 서울: 학지사. (원전 1989 출판).
- Pitzele, P. A. (2016). *비블리오드라마로의 초대*(고원석 역, *Scripture windows* :

*Towards practice of bibliodrama*).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전 1998 출판).

Tian, D. (2015). 상담 및 집단치료에 활용하는 사이코드라마 매뉴얼(김세준 역, *The living stage: A step-by-step guide to psychodrama, sociometry and experiential group therapy*).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5 출판).

Turner, V. (1986). *The anthropology of performance*. New York: PAJ Publications.

통계청 (2021).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에서 2021년 3월 18일 인출.

【 Abstract 】

A Phenomenological Study for the Understanding of  
Bibliodrama Experiences for the Improv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Christian Young Adults

Kim, Yun Ju\*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mplement Bibliodrama and examine its process. The format of Bibliodrama was used to understand the meanings and psychological phenomena of Christian young adults in the process of their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examine how these experiences would be manifested in their life courses. Based on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he improvement proc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cedure. nine young adults in their twenties were selected at a church that had its first encounter with Bibliodrama. Along with a program of eight three-hour sessions,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participants individually. The results of their interviews outcomes identified eight components and 27 subcomponents. The eight components include "check of life," "maladap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perience of catharsis through Bibliodrama," "understanding of oneself through role playing," "interaction with others," "creation of a new role," "changes in one's life attitude," and "growth and challenge."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expressed and experienced familiar stories in the Bible in connection to their personal lives, broadening their understanding of others as well as new perceptions of themselv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xperiences through interactions with others helped them form new relations and that they had enhanced experiences of more flexi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anks to growing positive thoughts and feelings.

**Key words:** Christian young adults,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Bibliodrama, phenomenological study, interaction

\* Ideensam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 Director